



캠퍼스 생활 필수 '노트북' 뭐가 좋을까

잦은 외부사용, 배터리 사용시간·안전성 확인 필수

다양화된 디자인에 제조사들 혜택까지 선택 폭 넓어져

노트북은 새 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IT 기기 가운데 하나다. 학교 수업이나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는 캠퍼스 생활의 필수 기기다.

노트북은 문서작성 및 인터넷 정보검색을 위한 사양과, 디자인, 사진작업을 위한 전문 가용 등 활용도에 따라 나뉜다. 또 이동 시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휴대성도 강조된다. 합리적인 노트북 구매방법을 알아봤다.

◇무게에만 현혹되지 말고 성능까지 꼼꼼하게=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트북과 데스크

톱의 가장 큰 차이가 '휴대성'이라고 말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캠퍼스를 누비며 과제, 조모임 등 바쁜 일상을 보내는 학생들에게는 책상 위에서만 PC의 기능을 다하는 데스크톱보단 노트북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휴대성의 관점을 무너대고 가벼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먼저 외부에서 사용이 잦은 노트북의 특성상 배터리 사용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순간 PC를 활용하기 위해 전원을 켰으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방전돼 사용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노트북이 아닌 귀찮은 짐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동 중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필수 확인이요소다.

◇디자인·색깔로 개성 살리고, 구매는 합리적으로=IT기기의 색상이 검정색이나 회색 위주였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선보이는 제품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TV 드라마에서 '천송이 노트북'으로 관심을 모은 '북9 라이트'는 블러쉬핑크와 라임그린 등의 색상을 갖춰 대학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PC 역할과 함께 액세서리 패션 소품의 기능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월은 본격적인 졸업·입학 시즌으로 IT 기기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다. 각 노트북 제조사마다 크고 작은 판촉행사를 실시한다. 가장 오래된 '삼성전자 S 아카데미' 행사의 경우, 구매자에게 어학·자격증·그래픽 관련 270여개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삼성에듀 온라인 학습혜택을 제공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해 모바일 광고시장 4160억원 전년 두배 전체 광고시장 4.2% 차지

지난해 국내 모바일광고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두 배 가량 성장한 416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내놓은 '2013년 모바일광고 산업통계 및 광고효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광고 시장은 전년 2159억원 대비 93% 성장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체 광고시장(9만8010억원·제일기획 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2.0%에서 지난해 4.2%로 증가했다.

모바일 시장은 모바일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션(앱), 배너, 문자 형식으로 표출되는 광고인 '디스플레이광고'가 성장을 견인했다. 디스플레이광고 규모는 2012년 907억 원에서 지난해 배가 넘는 2004억원으로 커졌다.

모바일에서 광고를 시청한 이용자에게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형 광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신개념 광고로, 58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냈다.

모바일광고 사업자 중에서는 광고주 대신 광고물을 기획·제작하는 광고대행사의

매출(1811억원)이 전체의 4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러나 광고 매체가 다양해지고 효율적인 매체 선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올해부터는 미디어렙사의 매출 비중이 광고대행사를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렙사는 포털 등 매체사를 대신해 광고주나 광고행사에 광고공간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미디어렙사는 지난해에는 1470억원의 매출로 전체 모바일광고 시장의 35.3%를 차지했으나, 올해에는 시장 점유율이 47.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용자가 직접 모바일광고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비율인 클릭률은 검색광고(73.3%)가 가장 높았으나,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율은 보상형광고(60.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대행사의 올해 시장점유율은 35.4%로 예상된다.

이용자가 직접 모바일광고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비율인 클릭률은 검색광고(73.3%)가 가장 높았으나,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율은 보상형광고(60.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광고 관련 사업자 152개사와 광고주 85개사, 이용자 2천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조사 결과는 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문 기사, 모바일로 가장 많이 본다

언론재단 수용자 의식조사, 55.3% 이용…뉴스 이용 日평균 105분

우리나라 국민은 종이신문 기사를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8일 지난해 9월10일~10월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82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3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발표했다.

재단이 신문기사 이용경로를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이동형 단말기)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55.3%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데스크톱PC·노트북 등 고정형 단말기(50.7%), 3위는 종이신문(33.8%)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기기로 신문 기사를 읽는다는 응답은 2011년 19.5%로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334.3분)의 31.6%를 차지했다.

미디어별 기사·뉴스·시사보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5점 만점)에서는 지상파TV 방송이 4.13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보도전문채널이 3.84점, 종합편성채널이 3.72점으로 뒤를 이었다.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4점이었다.

KT, 국내통신사 1위

KT는 19일 영국의 브랜드 평가 컨설팅 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선정한 '2014 통신 브랜드 500위'

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통신사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브랜드파이낸스는 올해 KT의 브랜드 가치를 49억1200만달러(한화 5조2000억원)로 산정했다. 이는 국내 통신사 중 가장 높은 순위이며 전 세계에서는 33위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는 SK텔레콤은 36

위, LG유플러스는 66위에 올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제품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고객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풀넓게 얻을 수 있도록 니콘 제품 활용법

에 대한 유저 세미나를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28일까지 오픈을

기념, 매장 자체에서 특가 판매 행사도 진

행한다.

유저 세미나 및 오픈 기념 이벤트에 대

한 상세 정보는 광주 우영카메라 매장

(062-227-3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며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균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특가가격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월액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m² / 76.42m²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m² (주179.43평)
분할 가능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사무실 / 학원
1164.9m²
(주352.38평)
365.58m²
216.87m²
582.45m²

4층 아스터어학원 임대학정
유튜엠 수학학원

5층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전속물건 - 공동증개환영

公 告 利川徐氏 尚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尚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NAVER 결제방법 단비플라워 흥겨보세요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원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